

한국 사회에서 영화의 지성화 과정에 관한 연구 : 1988~2007년까지의 인쇄매체에 나타난 영화담론을 중심으로

Intellectualization of Film genre in Korea: the case of Film discourse From 1988 to 2007

김정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Junghwan Kim(marylongmp@hanmail.net)

요약

이 연구는 1987년 영화의 자율화 정책 이후 인쇄 매체에서 생산된 담론 분석을 통하여 영화의 사회적 위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사회학 이론을 원용하여 영화의 사회적 위상의 변화를 전문적인 영역과 대중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전문적인 영역은 '영화학 관련 석·박사 논문'과 대표적인 영화학 학술지 「영화연구」(1989~2007)를 통해서 알아보았고, 대중적인 영역은 '영화관련 단행본'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영화를 분석하는 틀이 전문화·다양화 되어 영화 장 내부의 상징자본이 축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영화의 지성화 과정에서 영화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논리와 산업과 정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논리 간의 역할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중심어 : | 영화담론 | 피에르 부르디외 | 지성화 | 장이론 |

Abstract

This study considered the transition of changes in social status of the film through the discourse analysis of printed media, having been published since 6th revised film policy in 1987. For the purpose, Pierre Bourdieu's cultural sociology, or 'Field theory approach' was engaged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basis of that theory, changes in social status was divided into expert and popular field. From 1988 to 2007, doctor's and master's theses on filmologie and the representative academic journal, 「Film Studies」 were examined with regard to area of expertise, and movie-related books with regard to popular on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symbolic capital had inhered in the cinematic field along with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analytic aspect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academic approach and political consideration had performed an important role in intellectualization of film.

■ keyword : | Film Discourse | Pierre Bourdieu | Intellectualization | Field Theory |

I. 서론

이 연구는 1987년 영화법 개정 이후 한국 사회에서 영화가 문화적으로 정당화 되는 과정을 영화담론의 분석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영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영화를 독해하는 주체에 따라 ‘뇌과학자, 심리학자, 미학자, 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화를 분석하는 이론으로 ‘정신분석, 패미니즘, 작가주의, 장르분석’등 여러 가지가 혼용되고 있다. 영화가 전문 연구자나 평론가, 이론가들에게 독해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여러 이론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특정한 문화 생산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이를 수용하는 독자들이 많아졌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영화 자체의 사회적 위상도 예전과 달리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문화콘텐츠, 융합콘텐츠와 같이 영화는 산업과 정책의 대상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의 수출과 관련된 산업적 관점, 국제영화제에서의 수상이나 영화감독들의 할리우드 진출과 같이 한국의 국가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한국 내에서 다양한 관점과 범위를 포괄하는 영화 장르의 사회적 위상은 더 이상 소수의 이론가들에게만 예술적 텍스트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흥행 논리에만 파묻혀 대중을 기만하는 저속한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과 이십년 전만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영화의 사회적 위상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다. 당시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도 한국 영화는 식민지시기에 조선영화를 가리킨 ‘방화(邦畵)’라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정부의 정책이나 산업의 막강한 권력에 눌려 영화계는 제작과 평가, 수용에 있어 독립적인 위치를 상실하였다. 한 해 동안 제작될 영화는 정부의 시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으며, 작품의 질과 예술적 성취마저 정부 주도의 행사와 승인 아래 허용되었다. 예컨대 영화진흥공사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인 대종상(大鐘賞)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아 원성을 샀으며, 신인의 발굴 역시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영화제에서 발굴하기도 하였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검열과

탄압은 사실상 영화계의 자체적인 질서나 논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일쑤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일련의 평론가, 교수, 기자들은 정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작품의 미학적인 완성도 보다는 흥행이나 산업의 논리에서 제작되는 국내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은 극히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1987년 이후부터였다. 그동안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던 영화계는 민주화 된 환경과 영화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주먹구구식의 제작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1987년의 출판자유화 조치를 통하여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언론의 자유가 폭발적인 표현의 자유로 연결되었다. 영화담론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중적인 차원에서 신문과 방송의 자유에서부터 학계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일어났다. 한편 동구권의 몰락과 같이 이념적인 대립이 무너지면서 이론적인 토대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학계 전반에 사회과학적인 연구의 중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학문적 조류가 형성되면서 딱딱한 사회과학보다 영화나 음악, 패션과 취미와 같은 문화적인 대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한국에서 영화가 수입된 이래 학문적인 관심이나 전문가들의 연구는 고사하고, 대중의 문화적 인정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불과 20여 년 동안 영화는 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영화가 지닌 사회적 위상변화를 ‘영화의 지성화’라는 주제 아래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영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하나의 문화적 정당화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 과정을 영화담론의 추이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 사회 내에서 영화 담론은 단순히 언어적인 배열이나 빈도의 증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산업적인 동력과의 역학 속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분석 시기 영화의 위상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사회학적인 관점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방법

1. 부르디외의 장이론적 접근

한국 사회에서 영화의 사회적 위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이론을 해석의 틀로 이용하고자 한다. 그의 장 이론(the theory of field)은 한 사회 내에서 문화생산의 장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역학을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역학이 제도나 산업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장 내부 행위자들이 생산한 담론과 같은 상징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 이론에서는 한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문화적인 생산물의 물리적인 측면(문학, 미술, 영화 등)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측면(비평, 연구, 저술 등)을 중요한 사회적인 구성물로 간주한다. 이 논문에서 영화 담론은 이러한 상징적인 생산으로 간주하여, 영화를 문화적으로 정당화 하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장이라는 사회공간은 그 공간 내의 행위자(개인)나 집단(조직)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양과 배치에 따라 그 위치(position)가 차별적으로 정해지는 객관적인 관계망이라 할 수 있다. 영화담론을 생산하는 공간을 예로 들면, 영화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의 양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행위자들은 그렇지 않은 행위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 것이다. 각각의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은 유사한 (영화)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의 이해(interest)관계를 나타내고, 그 위치에 상응하는 입장을 가진다.

행위자들의 입장은 장 내에서 점유하는 하나의 지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문화 산물에 대한 성향이나 태도를 나타내며, 나아가서는 차별적인 문화적 실천으로 드러난다. 부르디외는 제도권 내에서 존재하는 위치들의 위계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통(orthodoxy) 세력과 이 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이단(heterodoxy) 세력으로 구분한다[1]. 그는 문화생산의 장에서 이러한 정통 세력과 이단 세력들이 자본의 획득(인정과 승인)을 둘러싼 이해관계 때문에 투쟁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투쟁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가치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점 때문에 상징투쟁이라고 한다. 상징투쟁을 통해서 정통 세력은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며,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상징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최대한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보존전략'을 사용하고자 하는 반면, 신진(이단)세력의 경우 정통세력이 지니는 상징자본(권위, 신용 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들과의 구별 짓기를 통한 문화적 실천을 한다. 이를테면 신진 세력은 새로운 이론의 수용이나 주장, 제안과 같이 상징적인 논리를 주장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 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신문, 잡지, 인터넷 등)를 이용하거나 제도적인 장치(새로운 학회나 영화제, 제작유형 등)를 통하여 정통세력의 권위를 뒤집는 '전복 전략'을 이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예술계에서 세력들의 교체과정은 단순히 인력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진세력들이 가지는 관점과 주장이 대중적·전문적인 수준에서 승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징투쟁의 양상은 그 장에 존재하는 위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장의 질서나 논리를 드러낸다.

장은 경제적·정치적 장의 구조화 원리로부터 얼마나 자율성을 획득하고 있는가에 따라 '제한 생산의 하위장'과 '대량생산의 하위장'으로 구분된다. 제한 생산의 하위장은 장 내의 행위자나 소수의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물질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간섭에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 장에서는 경제자본의 논리가 상징, 문화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컨대 제한생산의 하위장은 영화 장 내에서 특별한 미적 성향과 약호들의 습득을 요구하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과 같이 소수의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거나, 상징논리의 투쟁과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반면 대량생산의 장에서는 상징자본이나 문화자본의 가치보다는 산업적, 사회적 자본의 효과가 인정된다. 대개 이 장에서는 대중들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 별다른 교육 없이 상업적 성공이나 대중적 승인의 심급이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는다. 예컨대 영화 장 내에서 박스오피스나 관객 수, 영화 시상식의 수상과 같은 대중적 인정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2].

문화생산의 장에서 상징 생산은 장 내부에서의 의미 생산과 위계의 형성과 같은 미학적 질서 및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과 더불어 외부적으로 확산 및 제도화 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

서 살펴보는 영화 담론은 영화가 문화적으로 해석될 가치가 있는 상징 생산으로 전제하고, 사회 내에서 정당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2. 연구대상

영화담론은 그것이 생산되는 행위자가 지니는 ‘자본의 종속성’과 ‘문화자본의 지향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아카데미에 속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영화 관련 이론과 전문적인 비평과 능력을 공유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담론이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출판 형식을 가지고 영화영상학회의 학회지나 학위 논문이 이에 속한다. 둘째,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배포되고 영화와 관련하여 대중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문과 잡지에서 소개되는 영화관련 기사나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다양한 글들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문화적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전문 잡지나 인문·사회 잡지, 단행본 등이 있다. 이는 상업적인 출판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자/수용자의 범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위의 세 가지 영화담론의 유형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의 전문적인 담론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화학 관련 의 석사, 박사 학위 논문과 영상(영화)관련 학술지에서 영화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영화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시청각적 요인, 장르적 속성’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산업적, 미학적, 예술적 관심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관심이 전문적으로 나타난 것이 석, 박사 학위 논문과의 조응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제도권 내의 전문가(교수, 비평가, 이론가 등)들이 생산하는 학술지 논문은 당대에 중요한 전문적인 영화담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90년대 이후 영화관련 학과의 추이와, 학회 수, 게재자 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둘째, 영화와 전문적/대중적인 관심을 담고 있는 담론의 유형으로 단행본을 분석하였다. 시기적으로 1990년대를 전후하여 영화관련 단행본이 급속하게 확대되는데, 이는 한국 내의 산업규모가 커지는 것과 대중적/

전문적인 관심사가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단행본은 전문적인 영역과 대중적인 영역 모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 추이는 제한 생산의 장에서 생산되는 담론의 의미뿐만 아니라 대중 생산의 장 영역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저널리즘의 영역과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영화담론의 확대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확산되는 저널리즘 분야는 담론의 생산 양과 접촉면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만, 한정된 지면과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상징생산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 역시 대중비평의 성장과 더불어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확장되었지만, 기존의 인쇄매체가 수용자와 생산자를 중개하는 매개자들, 예컨대 출판사, 편집자, 교정자 등으로 인하여 텍스트가 가지는 수준과 범위가 일정하다는 신용(credit)이 있지만, 인터넷은 이러한 중개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대상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영화의 지성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1987~2007년까지 생산된 영화담론 중 학계와 단행본 시장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영화의 지성화에 기여하였는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III. 영화 담론의 생산과 지성화 과정

1. 학계에서의 상징자본 축적과 제도화

1980년대 후반 영화계는 오랫동안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었던 영화법과 정책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폐쇄적인 영화계의 제작논리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영화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신진 영화인 세력들이 유입되면서 국내 영화계 내부는 산업의 합리화와 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한편 학계와 제도권 내에서도 1989년 그동안 유명무실 했던 한국영화학회, 한국평론가협회가 재창립 하면서 세미나와 학회지 발간을 재개하였다. 더불어 신진 학자들과 1990년대 영화관련 유학생들

의 유입으로 학계의 변화도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학계에서 생산되는 학위 논문은 영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1990년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학계에서 생산되는 영화담론은 사회 내에서 영화의 제도적 승인과 연관되며, 추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대중으로 확산되어 대중적 승인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 내의 전문연구자나 교수에 의한 영화 지식의 승인은 영화 자체가 전문적으로 제도화 되는 과정임과 동시에 대중에게 사회적 위상 변화를 보장하는 강력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8~2007년 20년 동안 영화학 관련 논문 수는 1,715건(석사: 1,634, 박사: 81)이다. 1990년대 초반 문민정부 이후 영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993년은 이전 해 대비 두 배 가까운 수(23⁷41편)의 석사학위가 생산되었다. 그리고 교육통계서비스[3]에 따르면, 1999년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8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7년은 22개의 학교로 늘어났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부의 연극영화학 관련 학교의 인가를 승인하고, 전국적으로 늘어난 영화학 관련 교육자들의 양산으로 인해 석사학위 논문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연도별 석·박사 학위논문 추이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석사	10	17	20	22	23
박사					2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석사	41	40	61	82	87
박사				1	1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석사	70	88	59	102	165
박사	1		3	2	8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석사	140	177	146	124	160
박사	12	10	10	19	12

*2012년 11월 한국영상자료원 소장자료 기준

한편 1990년대 석사학위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박사 학위 수여자는 전체의 81편의 5편(6.17%)에 해당할 만큼 미미하다.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과정은 학계에 남으려는 자와 영화계 및 산업계로 진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박사 학위과정

은 영화학 관련 교육 분야나 학계와의 연관성을 두고 있어 석사과정에 비하여 운신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학 박사학위 과정을 선택하는 문제는 학력(문화자본)의 축적을 통한 경제자본(취업 등)으로의 전유 가능성이나 학계와의 연계 속에서 읽어야 한다. 부르디외는 같은 집단이나 계급 구성원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인지와 행위 과정이 내면화된 구조를 하비투스라고 설명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 선택 역시 개인이 사회화 된 환경 속에서의 형성된 무의식적 결정이라는 것이다[4]. 그런 점에서 볼 때, 박사학위 과정의 선택은 개인적인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선택에 주어질 학문적 권위나 이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학위의 선택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이득이 내포된 것과 같이 '주제'의 선택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 박사학위 논문주제 변화

연도	1992	1996	1997	1998	2000	2001
박사	2	1	1	1	3	2
산업		1				
이론			1	1	1	1
역사	2				1	1
비교						
미장센						
제작기						
기술					1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박사	8	12	10	10	19	12
산업	2	4		3	7	3
이론	1	4	2		5	2
역사	1		4	2	2	3
비교	2	3	2	1	3	1
미장센	2		1	2	2	2
제작기			1	2		1
기술		1				

* 비 교 : 문학/장식/화장 - 디자인

** 산 업 : 정책/수용자/마케팅/이미지/기술 - 효과연구

***미장센: 화면/서사/연기/예술 - 미학, 영화

박사학위 논문을 주제별로 보면, '이론(17편), 역사(17편), 미장센(9편)' 분야에 있는 비중이 43편(53.08%)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화 장외부에 위치한 산업(경제적 속성)이나 정치적인 권력과 거리를 두고 영화 텍스트를 미학적,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분석과 같이 영화 장 내의 상징자본의 축적과 관련

이 있다.

단일 유형으로 가장 높은 빈도의 주제는 산업관련 논문이다. 산업 분야는 20편(24.69%)으로 영화가 대중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효과연구(수익성, 광고·홍보 등)로 접근하거나,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연구 등이 포함된다. 산업 분야의 논문은 1990년대까지는 미미하다, 한국영화의 성장과 흥행이 이루어지는 2000년대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학교별 박사학위의 논문 추이를 살펴보면, 연극영화학과가 있는 '중앙대, 동국대, 한양대'가 전체 43편(53.0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중앙대가 '이론, 역사, 미장센'의 분야의 전체 43편의 논문 중 23편(53.48%)으로 가장 높다. 분석 기간 동안 '중앙대(26편), 동국대(10편), 성균관대(9편), 한양대(7편)'를 제외하면 박사학위 논문이 5편 이하로 지속적인 학위논문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연도별 박사학위 학교별 추이

연도	1992	1996	1997	1998	2000	2001
박사	2	1	1	1	3	2
중앙	1	1	1	1	2	1
동국						
성균관						1
한양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박사	8	12	10	10	19	12
중앙	1	2	4	2	6	4
동국	2	1	3	2		2
성균관		4		1	3	
한양		1		3	1	2

* 영화학 관련 박사학위는 4편이 고려대학교, 3편은 연세대, 한국외대, 서울대, 홍익대, 2편으로 부산대, 전주대, 1편은 강원대, 국민대, 부경대, 세종대, 숙명여대, 우석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대이다.

다음으로 학술지에서 발표된 영화관련 연구현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영화관련 학술지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문화자본(학위소지 및 경력)이 소지된 자로 투고 자격이 한정되기 때문에 영화학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범주화가 학위 논문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연구」의 편집 규정을 따르면, 논문 투고를 학회 정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2장 7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에서 정회원은 '영화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 또는 2년제 이상의 영화관련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

상 강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화학 관련 '학위'와 '경력'이라는 단서는 회원의 자격을 학계 내에서 취득한 일정한 문화자본의 축적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생산해낸 영화 담론은 자연스럽게 영화 장 내부에서 지적 자산으로 나타나게 된다. 학술지 발표 논문은 학계 내의 심사와 출판, 그리고 동료 연구자들의 공인 정도를 감안할 때 학위 논문에 비하여 제도화 효과가 높다. 또한 학위 논문의 경우 개별 학교 내의 정치적 상황(지도교수와의 관계, 선·후배 사이의 상호교류 등)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학회는 비교적 자율적인 상황에서 생산되는 종류의 저술이라 할 수 있다.

학위 논문은 보통 국내에서 유통되는 이론과 관점으로 생산되고, 저널리스트나 평론가 및 연구자로 한정되는 반면, 학술지는 학계나 영화계 내에서 통용되거나 주도하는 이론들을 생산하거나, 신진 연구자들의 진입 경로로 이용되기도 한다.

한국영화학회에서 발간되는 「영화연구」는 1978년에 창간되었고, 2007년까지 영화(영상)관련 학술지는 10개에 달한다. 영화와 영상학술지의 관련성은 '문학, 애니메이션, 교육'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대중서사학회, 1995), 만화애니메이션연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1997), 독립영화(한국독립영화협회, 1999), 영화교육연구(한국영화교육학회, 1999), 씨네포럼(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1999), 영상기술연구(영상기술학회, 1999), 문학과 영상(문학과 영상학회, 2000), 디지털영상학술지(한국디지털영상학회, 2004), 현대영화연구(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05), 애니메이션연구(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05)가 있다. 괄호 안은 학회지 창간년도를 의미한다. 또한 영화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특성 때문에 영화 전문 학회지를 제외하고 관련 학회(언론, 디자인, 의류, 공학 등)에서 영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중 「영화연구」는 1989년 재창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9~2007년까지 발행된 논문은 총 384건이다.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6년 발간된 11호는 6편으로 논문의 주제가 '역사, 작가, 이론연구, 기술'로 네가지였다면, 1997년 발간된 13호는 22편으로 논문 주제가

‘작가연구, 장르분석, 역사, 산업, 이론, 기술, 텍스트분석’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논문의 확대는 학위논문을 받은 회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6년(11호)의 저자는 ‘강한섭, 조희문, 김수남, 김지석, 최병근, 서인숙’ 여섯 명으로 서인숙(강사)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수진(83%)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1997년(13호)는 22편의 논문 중 ‘민병록, 정재형, 조희문(2편), 진수일, 김수남, 주진숙, 니켈’의 일곱 명(32%)을 제외한 14명(63%)이 (전임)강사로 구성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영화장에 진입한 신진 연구자들이었으며, 학위논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이거나, 유학에서 복귀한 교원으로 구성되었다. 「영화연구」는 1996년까지 각각의 유목에 평균 3건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논문 생산량이 많지 않으나, 1997년부터는 대부분의 주제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논문 편수의 양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연관성이 있다.

표 4. 「영화연구」(1989~2007) 논문 편수 증가추이

연도	1989	1990	1991	1993	1995
편수	11	10	7	8	9
호수	6	7	8	9	10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1
편수	6	30	26	21	28
호수	11	12~13	14	15	16~17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편수	40	22	39	37	39
호수	18~20	21~22	23~24	25~27	28~30
연도	2007				
편수	48				
호수	31~34				

* 영화연구는 1978년부터 부정기적으로 발간되어 1989년 재창간 된 이후를 통계의 기점으로 잡았다.

** 자료: 2012년 11월 현재 누리미디어 소장자료 분석(인사말, 특집제외)

그리고 「영화연구」 31호인 2007년부터는 종전의 연간 1~3회로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던 학술지가 연간 4회로 규정되면서 이전과의 논문 편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분석 기간 동안 발간된 「영화연구」의 논문 주제를 분류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이 분류표는 영화분석의 보편적인 연구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 비교를 위한 편의적인 틀이다. 「영화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영화 자체에 대한 분석(이론, 작가, 장치, 장르, 작가주의 등)과 영화를 둘러싼 사회적인

배경(산업, 역사, 기술)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표 5. 「영화연구」 논문의 주제별 구성

텍스트	이론소개	영화이론, 실험영화, 구조주의 이론
	이론분석	기호학,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등
	작가분석	작가주의 이론소개, 각 국의 영화작가
	장치분석	장면(시·청각 스타일) 분석
	장르분석	한국 및 세계의 장르별 특징과 영화
서사분석	캐릭터 분석, 담론연구, 매체서사비교	
컨텍스트	산업동향	산업(매체 도입 등),제도(심의, 검열)
	역사	한국(조선)영화: 기점, 개념정의, 특정 영화 스타일의 역사연구
	기술	색 재현, 사운드, 디자인(프로덕션), 3차원 입체영상 등

* 논문 편수로 포함된 번역 논문은 구성에 포함하지 않았음

표 6. 「영화연구」 논문의 주제별 구성 (텍스트)

연도	이론		작가	장치	장르	서사
	소개	분석				
1989			4		2	
1990	2		3	1		1
1991	2		2			
1993			2	2		
1995		1	2	1	2	1
1996	1		2			
1997	3	1	6	3	3	
1998	6	3	5		1	1
1999	1	1	5		2	2
2001	2	3	5	3	2	2
2002	4	3	3	2	5	
2003	3	1	3	4	2	2
2004	4	2	8	3	2	1
2005	5	1	1	10	3	3
2006	4	4	1	6	5	3
2007	5	3	5	7	5	4
건/비율	42	23	57	42	34	20

* 번역으로 게재된 논문 3편은 제외하였고, 1992, 1994, 2000년은 학술지가 발간되지 않았다.

이론 소개와 분석을 통해 게재된 논문은 65건이다. 이 유목은 영화라는 텍스트를 하나의 유의미한 분석과 해석 가능한 생산물로 가정하고 있다. 이 유목의 점진적인 증가는 영화를 학문적인 문화생산물로 정당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작가 분석의 논문이 57건으로 나타난다.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미학적인 특성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논문에서 단일 유목으로는 산업(78건)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현실 영화산업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학계의 담론을 생산하는 저널리즘에도, 영화 장 외부의 권력(홍행, 관객성, 정책 등)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감안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한국에 등장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와 관객 수의 증가 추이에 따라 산업분야의 논문 편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7. 「영화연구」 논문의 주제별 구성 (컨텍스트)

연도	산업	역사	기술
1989			3
1990	2		
1991	3		
1993	2	1	1
1995	2		
1996		2	1
1997	7	5	2
1998	6	4	
1999	3	6	1
2001	6	2	3
2002	7	11	5
2003	5	2	
2004	11	5	3
2005	7	6	1
2006	9	7	
2007	8	10	1
건	78	61	21

영화의 전문적 담론을 생산하는 학위논문과 학술지에서 공통적으로 2000년대 이후 영화의 상징적인 자산을 축적하는 유형 ‘이론적 분석 및 해석’이 증가함과 동시에 ‘산업과 정책’ 유형도 함께 상승한다는 결과가 발견된다. 이는 영화 장 외부의 권력과 거리를 둔 축적되는 상징자본이 있는 반면 예술 산업 내에서 경제적 자본으로 환원되는 산업논리와 의미를 추구하는 입장이 서로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6].

2. 단행본 시장에서의 영화담론의 전문화

이 장에서는 영화관련 단행본의 추이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단행본은 저술과 출판과정에 있어 신문이나 잡지에 비해 시의성이 떨어지고, 독자와의 탄력적인 피드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매스미디어를 통해 배포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범위에서 독자에게 소구할 수 있으며, 출판사와 같은 매개활동을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독자의 선택과 내용의 명확성에 있어 저널리

즘 담론보다 기획과 의도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된다. 따라서 단행본은 영화장 내에서 넓은 범위로 배포되어 물질화 된 형태로 나타난 상징자본으로 이들의 연도별 추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 영화의 사회적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현재 출판연감에 ‘영화’ 분야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영화 관련 단행본 현황은 한국영상자료원 연도별 단행본 추이와 DBPIA(누리미디어)의 소장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영화와 무관한 영화음악 악보, 소설, 만화 자료는 제외하였고, 중복자료 삭제, 학술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8. 연도별 영화관련 단행본 추이 (1988~2007)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도서	29	43	65	50	56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도서	86	88	85	78	102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도서	83	139	117	146	142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도서	188	155	235	256	306

* 한국영상자료원의 도서 목록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후 도서 현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2012년 11월 현재 한국 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 단행본 현황과 DBPIA(누리미디어, www.dbpia.co.kr)의 주제별 검색어로 ‘영화’로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1988~2007년까지 영화관련 단행본은 2,449건으로 나타났다. 단행본의 증가추이는 분석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과 1997년의 전체 건수는 86건과 102건으로 양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다. 1993년에는 영화 정보나 스타를 소개하는 기사가 44건으로 영화평론과 이론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단행본의 23건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많다. 반면 1997년에는 영화 정보에 해당하는 건수는 23건이고, 영화평론과 이론분야는 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화가 대중적 흥밋거리나 정보 위주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할 만한, 평가할 만한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을 반증한다.

표 9. 연도별 영화관련 단행본 추이(주제)

연 도	1988	1989	1990	1991	1992
단 행 본	29	43	65	50	56
산업/정책	6	4	11	13	11
	20.7	9.3	16.9	26	19.6
제작/기술	5	10	22	5	8
	17.2	23.2	33.8	10	14.3
영화 소개	6	6	7	8	11
	20.7	13.9	10.8	16	19.6
평론/이론	12	23	25	24	26
	41.3	53.5	38.5	48	46.4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단 행 본	86	88	85	78	102
산업/정책	7	15	11	11	13
	8.1	17	12.9	14.1	12.7
제작/기술	12	20	14	5	20
	13.9	22.7	16.5	6.4	19.6
영화 소개	44	23	24	29	23
	51.2	26.1	28.2	37.2	22.5
평론/이론	23	30	36	33	46
	26.7	34.1	42.4	42.3	45.1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단 행 본	83	139	117	146	142
산업/정책	20	15	22	37	25
	24.1	10.7	18.8	25.3	17.6
제작/기술	12	34	27	24	22
	14.4	24.5	23.1	16.4	15.4
영화 소개	24	35	29	18	31
	28.9	25.2	24.7	12.3	21.8
평론/이론	27	55	39	67	64
	32.5	39.6	33.3	45.8	45.1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단 행 본	188	155	235	256	306
산업/정책	27	40	72	41	148
	14.3	25.8	30.6	16	48.3
제작/기술	25	18	19	24	31
	13.3	11.6	8	9.3	10.1
영화 소개	49	35	57	70	60
	26	22.5	24.2	27.3	19.6
평론/이론	87	62	87	121	67
	46.2	40	37	47.3	22.1

* 산업/정책 :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 마케팅, 연구보고서 관련
 ** 제작/기술 :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 디지털 편집, 촬영기법 등
 *** 영화 소개 : 영화정보, 감독 소개, 자서전, 회고록 등
 **** 평론/이론 : 영화분석, 평론, 이론소개 및 분석

2000년대 초반 산업/정책 분야 단행본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1988년 산업/정책 분야가 20.7%를 차지 하였던 것이 2007년에는 48.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관 주도의 영화진흥공사가 민간 협의 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이론서 번역 및 통계 조사와 같은 제한적인 방향에서 산업동향이나 제안, 마케팅 방안 등 넓은 범위로 확대되면서 일어난 것이다. 또한 2007년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전한 한국영상자료원은

국내외의 필름이나 영화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영화와 관련된 일체의 연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2007년 ‘산업/정책’으로 책정된 148건에서 원로 영화인 구술사 작업은 29건, 신문기사 자료집이 18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양상은 정부가 영화를 중요한 수집과 자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연도별 영화관련 단행본 추이(필자)

연 도	1988	1989	1990	1991	1992
단 행 본	29	43	65	50	56
교수 / 평론가	13	21	40	24	23
연구소/비전공	6	7	2	4	14
조직/이론가	5	9	9	3	9
정 부	2	5	10	11	9
영 화 인	3	1	4	8	1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단 행 본	86	88	85	78	102
교수 / 평론가	27	39	36	34	51
연구소/비전공	35	27	27	26	31
조직/이론가	11	5	9	8	11
정 부	5	4	4	6	6
영 화 인	8	13	9	4	3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단 행 본	83	139	117	146	142
교수 / 평론가	31	45	37	62	58
연구소/비전공	30	54	42	36	37
조직/이론가	9	25	10	20	29
정 부	9	6	19	22	13
영 화 인	4	9	9	6	5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단 행 본	188	155	235	256	306
교수 / 평론가	85	54	91	127	158
연구소/비전공	48	43	55	68	61
조직/이론가	29	31	43	29	22
정 부	14	24	39	19	55
영 화 인	12	3	7	13	10

* 교수/평론가 : 영화 평론가, 전문기자, 교수
 ** 연구소/단체/비전공자 : 경제연구소, 영화 비전공자, 일반 기자
 *** 영화 조직/이론가 : 영화운동 단체, 영화 조직
 **** 정부 : 정부 산하기관의 보고서 및 연구 프로젝트
 ***** 영화인 : 영화감독 및 촬영, 배우, 스태프 등

영화 관련 단행본 시장에서 단순 제작과 기술에 해당되는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영화에 대한 상징생산이 이루어지는 ‘평론/이론’과 ‘영화 소개’에 관련된 항목은 꾸준한 비율을 차지하며, 전체적인 건수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단행본 시장에서 영화감독이나 배우들 스스로가 회고록, 평론집 등을 출판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영화인들의 출판은 54건으로 40.9%를

차지하였던 것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영화인들이 출판한 도서가 78건으로 59.1%로 나타났다. 단행본 시장에서 영화인들의 자기 기술 및 분석은 예술계 내에서 작가나 아티스트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7].

필자들은 영화계 및 대중적인 장에서 지적 권위를 인정받는 교수 및 평론가 군이 전체 2,449권에서 1,056건(43.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영화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연구소나 비전공자들이 653건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영화 장 내에서 상징생산을 하는 문화매개자 이론테면 영화학을 전공한 전문기자나 교수, 평론가들이 많아지고, 영화 평론과 분석의 수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전후로 영화이론서가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영화진흥공사에서 후원하여 영화전공자들의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200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국내 저자들이 자체적으로 이론을 소개 및 분석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표 11]은 영화 전공의 ‘교수/평론가’가 저술한 575권의 단행본 중 번역 유무를 나타낸 표이다. 번역 작업은 단순히 텍스트의 언어적 변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과정에서 원 저자가 지니는 문화적 권위나 가치의 문제를 수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번역은 단순히 단어나 텍스트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옮기는 문제이며, 그러한 번역의 이면에는 권력 관계와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7]. 이런 측면에서 영화 관련 번역서들은 외국의 이론이나 비평담론의 수입과 관련된다. 1988~1996년까지 번역서 비율이 45.18% 되던 것이 1997~2005년까지 32.02%로 낮아지는 것은 그만큼 영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영화담론을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연도별 단행본 번역본 추이 (1988~2005)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전체	4	10	21	17	17	21	25	26	25
번역	2	5	13	7	8	8	5	13	14
저술	2	5	8	10	9	13	20	13	11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41	28	39	34	44	49	63	41	70
번역	7	10	12	14	12	15	22	15	24
저술	34	18	27	20	32	34	41	26	46

* 학술 보고서 및 자료집이 급증하는 2006년과 2007년 자료는 제외

단행본은 영화와 같이 불확실한 경험제를 매개하는 중요한 상징자본이다. 이 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화 전문 평론가와 기자가 증가하며, 이들이 생산해 내는 전문적인 이론서와 비평텍스트는 영화계 내부에 상징자본의 축적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더불어 단행본 시장은 넓은 범위의 독자에게 소구되기 때문에 전체 영화관련 단행본 시장의 확대는 대중적 독자의 확보를 의미하기도 한다.

IV. 논의

한 사회에서 생산되는 담론은 어떠한 사회적 사안이나 대상이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거나 단선적인 진화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형성하고 매개하는 특정한 시대나 국면의 담론들의 구조와 사회적 실천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재)형성된다[8]. 따라서 영화담론의 생산은 결코 사회적인 맥락과 유리되지 않으며, 담론의 양적 증가와 수준이 영화를 문화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영화담론의 생산은 전문적, 대중적인 차원에서 상징자본의 축적과 영화의 학문적 정당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전문적인 수준에서 학위 논문과 영화 저널은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주제와 성격 역시 분화되어 갔다. 초기 영화를 분석하는 관점이 ‘산업’과 ‘이론, 역사’ 분야에 한정되었던 것이 2000년대 이후부터 ‘철학, 미학, 예술학 등’과 영화학을 비교 연구하는 비율이 높아지거나, 영화의 시청각적 요소를 통한 미장센 분석, 그리고 (한국)영화사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비교 연구의 경우 이미 학문적·예술적으로 권위 있는 학문의 틀을 이용하여 영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영화가 회화나 음악이 가지는 문화적 지위와 동등한 해석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영화의 미장센 분석은 회화나 문학 등에서 행해지는 미학적 분석 틀(회화의 경우 색, 구도, 배치, 문학의 경우 서사, 스타일, 문체 등)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영화의 문화적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화관련 대표적인 저널인 「영화연구」는 2000년대 전후 이론의 소개와 분석과 관련된 담론이 증가한다. 영화는 단순히 텍스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과정으로 보게 됨에 따라 계급, 인종, 젠더, 민족 등과 같은 일상적 가치와 의미가 충돌하고 상호 작용하는 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 결과 작가 영화 대 대중영화, 대안영화 대 주류 영화, 예술영화 대 할리우드 영화라는 이분법적 대당(對當)에서 벗어나게 되었다[9]. 이는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분화와 연결되며, 영화를 학문적인 대상과 더불어 문화적인 현상이라는 관점의 확대를 보여준다. 이처럼 전문적인 수준에 있어 영화담론의 확대는 상징 자본(영화 연구와 이론적인 자산)의 축적으로 연결되며, 영화가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함을 보여준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영화담론은 제한적인 생산의 장으로 소수의 전문적 연구자들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 생산되는 영화담론과 영화 관련학회의 증가는 영화를 학문적인 대상으로 탐구하고, 논의하는 실천들이 자연스러워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영화담론이 가지는 상징권력(symbolic power)의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영화관련 단행본의 경우에도 분석 시기 동안 양적인 증가와 동시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90년대를 전후하여 새롭게 부상한 필진들은 80년대 영화운동에 참여하거나 대학에서 영화학을 전공하던 ‘강한섭, 김소영, 변재란, 유지나, 이효인, 전양준, 이용관, 김지석’ 등이다. 이들은 신문과 잡지의 제한된 정보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 작가, 미학, 그리고 한국의 영화사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들은 당시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고 있던 영화학과 교수들과 평론가들이 보여주는 기술·인상 비평과는 차별적으로 이론적이고 전문화적인 근거를 통한 평론을 하였다. 젊은 필진들은 한울, 한나래 등의 영화 전문 출판사들을 통하여 전문적인 영화이론, 분석방법, 작가주의, 영화문화 연구 등 질적으로 전문화 된 담론을 생산하였다. 한나래 출판사의 경우에는 ‘필름컬처’ 시리즈 단행본을 출시하여 일본, 미국, 프랑스 영화사의 세밀한 분석과 이론적 접근을 보여주었다. 이는 1980년대까지 영화진흥공사나 소수의 출판사에서 영화도서가

생산되는 상황과는 차별화 되었고, 이러한 영화담론의 전문화 경향은 출판시장 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같은 매스미디어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영화담론을 생산하는 필진들의 교체와 이전의 제도권 내 영화담론의 생산자와의 차별화는 영화 장내의 상징투쟁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상징투쟁이 격렬한 논쟁이나 특정 이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지만, 신진 연구자들의 차별화 된 전략(기획 도서 출간, 전문적 비평, 영화사 연구 등)을 통하여 기존의 영화담론에서 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변화되어 갔다. 이러한 신진 세력들의 등장과 사회적인 수용은 영화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던 그들의 전략이 대중적으로 승인받았음을 의미하고, 영화의 지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영화 장르의 지성화 과정을 부르디외의 문화사회학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영화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문화로서 승인되어 가는 과정을 학계와 출판(단행본)시장에서 생산된 영화담론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지성화 과정은 문화 생산물이 유통되는데 있어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알아본 영화의 지성화 과정은 학계(학위논문, 학술지)와 단행본 시장(영화관련 단행본)에서 영화분석의 틀이 양적·질적인 증가가 있었다. 초기 영화분석틀이 작가주의나 장르적 접근에 불과하였던 것이 영화 자체에 대하여 다루는 이론적인 방법과 미장센(시·청각 요소), 서사 분석이 있는가 하면, 영화 외적으로 산업과 정책, 영화제작 기술, 영화사 연구까지 그 외연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영화의 지성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적, 대중적 영역의 표면적인 변화에 치중하고, 세밀한 텍스트 분석이 결여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영화의 지성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실제 영화 담론

의 사례를 통하여 그 근거가 뒷받침 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영화의 지성화 과정이 담론적인 층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담론적인 층위(정책, 산업의 변화나 정치·사회적 사건 등)의 영향과 피드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의 지성화라는 추상적인 논의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20여년에 걸친 방대한 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지성화를 둘러싼 제도적, 물리적 측면과 실제 담론 분석을 통한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저 자 소 개

김 정 환(Junghwan Kim)

정희원



- 2008년 8월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영상커뮤니케이션학과(영상학 석사)
- 2012년 12월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커뮤니케이션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영상문화 콘텐츠, 문화사회학

참 고 문 헌

- [1] 파트리스 보네위츠, 문경자 역, *부르디외의 사회학 입문*, 동문선, 2000.
- [2] P. Bourdieu and R. Johnson trans,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Florida: Polity Books, pp.120-121, 1993.
- [3] <http://cesi.kedi.re.kr/>
- [4] 박기웅, 조정연, “현대소비사회에서의 취향과 유행의 상관성과 대중문화의 역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2호, pp.165-175, 2010.
- [5] 피에르 부르디외,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동문선, 2006.
- [6] J. Blewitt, “Film, Ideology and Bourdieu’s Critique of Public Taste,” *British J. of Aesthetics*, Vol.33, No.4, pp.367-372, 1993.
- [7] 이상길, “학술번역과 지식수용, 혹은 “이론은 어떻게 여행하는가?” : 피에르 부르디외의 경우”, *언론과 사회*, 제19권, 제4호, pp.232-289, 2011.
- [8] 이기형,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4권, 제3호, pp.106-145, 2006.
- [9] 유지나, *한국영화사 공부: 1980~1997*, 이채, 2005.